

일반인 출연 예능 프로그램의 실천적 함의 - 푸코의 파레스시아와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양소연*

1. 들어가며
2. 왜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3. 이론적 논의
 - 3-1. 푸코의 파레스시아(parrésia)
 - 3-2.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
4. 자기 서사 말하기와 주체의 실천
 - 4-1. 말하기와 권력관계
 - 4-2. 위협의 감수와 말하기의 용기
 - 4-3. 자기 서사의 구축을 통한 가시화의 정치
5. 나가며 : 대중문화의 새로운 전유 가능성에 대하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반 출연자들이 밝히는 자기 서사가 단순한 치유와 공감의 차원을 넘어, 주체를 드러내는 정치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한다.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이나 출연은 미디어 상품의 소비 이상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만의 사유 체계를 구성하는 미학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KBS Joy의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을 그러한 문화의 장으로 보고,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에 도전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연한 이들의 서사를 분석하였다. 푸코의 ‘파레스시아(parrhesia)’와 랑시에르의 ‘미

*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학적 정치'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예능 프로그램 향유에 담긴 정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사회적 금기, 제도적 억압과 관련된 출연자들의 말하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백에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윤리적 책임,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의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예능 프로그램 속 일반인의 자기 서사를 미학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대중문화 연구와 정치철학, 미디어 연구의 교차점을 확장하고, 방송 예능을 공적 담론의 장이자 정치적 실천의 공간으로 재해석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 파레시아, 자기에 대한 진실, 무코, 랑시에르, 일반인 출연 예능 프로그램)

1. 들어가며

오늘날 대중문화의 중심에는 일반인의 일상과 경험을 주축으로 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개인 심리와 가족의 내밀한 관계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조언을 대가로 자기 고백과 노출을 전면에 내세운 다수의 프로그램이 종편과 케이블, 공중파까지 거의 모든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넘어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여주는 일상의 민낯에 더 크게 몰입해 공감하고,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숙명으로 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쉽게 내보일 수 없는 개인의 내밀한 삶은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끊임없이 제작되고 판매된다. 방청객이나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어 등 방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었던 일반인의 방송 출연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미디어에 자신의 일상, 관계, 고민 등을 자연

스럽게 드러낸다. 이들은 미디어에서 연예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우연한 등장이라는 고도로 기획된 상황에 들어가 카메라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를 신경 쓰며 대본 없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¹⁾, 현실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의사나 변호사를 만나 지인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밀한 사연들을 방송에 나와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 출연자들의 일상생활이나 서사를 예능 콘텐츠로 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현상을 미디어가 아닌 출연자에게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자기 서사를 가지고 출연하는 이들을 방송의 소비자나 연기가 아닌 시민 개인으로 바라보면서 일반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기 노출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이나 출연은 단지 미디어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 문화를 향유하고 사유 체계를 만드는 미학적 실천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일반인이 자신의 사유 체계로 구성된 서사를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방송의 적극적 참여를 넘어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전유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인 출연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핵심 콘텐츠로 삼는 예능 프로그램인 KBS JOY 오락 케이블 채널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의 능동적 전유가 갖는 미학·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2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3월부터 정규 편성되기 시작한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점집 분위기로 꾸민 공간에 방송인 서장훈과 이수근이 각각 선녀 보살과 야기 동자 캐릭터로 꾸미고 나와 고민을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간간이 연예인이 고민 상담자로 출연하긴 하나 주로 일반인 출연자의 고민 상담이 주를

1) 류재형, 「사회적 배우로서의 리얼리티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일반인 참여자: <윤식당2>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275쪽.

이룬다. 본 연구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주목하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의 역할이 단지 방송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장치나 수단 등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고 있으며, 고도로 기획된 제작 환경에서도 프로그램 콘셉트 자체가 일반인 출연자 개인의 실제 사연에 기반하고 있기에 일반인 출연자가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출연자들은 단지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재미를 위해 허구로 기획된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에 맞춰 연출된 고민 상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서사를 대중에게 공표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방송 출연을 자신의 의도대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자아 연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출연자의 주도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이때의 출연자는 방송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생산자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일반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리얼리티 쇼이면서, 동시에 라디오나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하게 보아 왔던 시청자 의견 청취 및 상담 콘텐츠의 계보를 잇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무속인 상담은 재미를 위한 설정일 뿐 형식으로 보자면 연예인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에 가깝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허구를 위한 예능이자 일반인이 실제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서 출연자들의 실재를 더욱 본질적으로 사유하게 만든다.

2. 왜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본 연구는 허구와 실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반인 출연 예능 프로그램이 문화적 장에서 주체성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

성에 초점을 두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일반인들의 담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시민의 대중문화의 능동적 수용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패러디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은 KBS1TV에서 1983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차용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전문가의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지식이 권력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의사나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 미리 사연으로 접수된 고민이나 궁금증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지식 권력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를 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의 사유 체계로 구성된 지식이 시청자의 행위와 사고방식을 규범화하고, 전문가가 갖는 권위는 건강, 법률, 소비 등 일상의 문제를 제도적 질서 안에서 해결하도록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이라는 형식은 유사하지만 설득의 주도권을 일반 시청자가 갖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방송이 갖는 지식 권력 구조를 전복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전문가의 권위가 약화된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질문하는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지식, 권위 구조 전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살>과 같은 일반인 출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 관점에서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일반인 출연 자체보다 미디어의 생산·수용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의 콘텐츠로서 산업적, 텍스트적 맥락을 다룬 연구²⁾들로 이때의 일반인은 일반

시민이 아닌 출연자로서 재현된 구성물로서 다뤄져 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상담형 예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역시 일반인의 방송 출연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초점을 두기보다 성별 고정관념 분석³⁾과 같은 담론 분석이나, 상담 포맷 형식 변화 연구⁴⁾ 등 매체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출연자의 증점을 둔 연구로 유지윤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의 부부 탐구 코너를 분석해 자기 고백이 갖는 치유 효과에 초점을 두고 방송에서 고민을 말하기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 주목했다⁵⁾.

본 연구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출연자들의 상담 속 대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과 조롱의 위험을 무릅쓴 정치적 행위임에 주목한다. 방송에 출연한 이들은 성 정체성, 가족 불화, 사회적 편견, 차별 경험 등 소위 '정상성'의 경계 밖에 놓인 사연을 자신의 언어로 드러낸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의 조언을 받는 자기 치유와도 다르고, 이들의 방송 출연을 단지 방송에 나오고 싶다는 이유나, 출연료와 같은 직접적 경제적 이익,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사 등의 간접 홍보, 아니면 유명세를 얻고 싶어서 등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에 활용하려는 목적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독특한 상황이나 현실을 공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포맷 상 선녀나 동자 등의 무속인을 희화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예인들에게 고민 상담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

-
- 2) 이희은, 「리얼리티, 리얼리티쇼, 그리고 일상의 테크놀로지로서의 리얼리티」, 『언론과 사회』 제31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3, 5-45쪽.
 - 3) 오다슬·유홍식, 「부부 동반 출연 예능·상담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별 고정관념의 재현과 갈등 양상」, 『한국방송학보』 제38권 3호, 한국방송학회, 2024, 85-132쪽.
 - 4) 김여주, 「고민 상담 예능 프로그램의 변화 양상 -〈무릎팍도사〉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64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141-174쪽.
 - 5) 유지윤, 「자기 배려로서의 미디어 고백: 1990년대 말 치유문화와 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4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20, 152-191쪽.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비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출연자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방송 출연자가 고민을 털어 놓았을 때 때로 두 진행자가 독설이나 비판과 같은 조언을 건네기도 하지만, 일반인 출연자들이 그대로 수긍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반박과 변명이 이어지고 자기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송에 나온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자신의 진정성이나 정당성을 입증받거나, 최소한 비난의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성 정체성, 인종과 국적의 차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연인과의 사랑, 신체장애나 질병, 화목하지 않은 가정 등 기존의 텔레비전에서 다루기 어렵던 사회적 편견이나 억압과 관련된 개인의 갈등과 고민을 드러내놓고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선정성에 기대 단순한 오락 콘텐츠로 소비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지만, 이러한 노출이 사회적 규범과 정상성의 기준에 도전하고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생성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일반인의 자기 진실에 대한 발화가 공적 담론의 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 된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에 나와 고민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남과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푸코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기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사연이 자기에 대한 진실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은 방송 출연만을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기만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거짓이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 본인의 사연으로 시청자 게시판에 자발적으로 자기 사연을 올려 출연 신청을 한 것이거나, 제작진의 사전 섭외

요청에 의한 경우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기에 대한 진실에서 출발한다. 방송에 나와 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비판이나 때로는 악플과 같은 비난이나 모욕까지도 감수하고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푸코가 언급하는 자기에 대한 진실 말하기의 요건 중 하나인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들 출연자들이 털어놓는 고민은 자신의 인식 구조 안에서 정리된 사연들로 일종의 자기 서사이며, 사안에 대한 자신의 미학적 판단이 개입된 말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출연자의 발화가 단지 심리적 치유나 오락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 진실 말하기이자 가시성의 정치적 사건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밝히는 고민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어떻게 푸코가 주체화를 논하며 언급한 파레시아(parrësia)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 있게 말하기⁶⁾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말하기가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예능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락 장르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공적 공간에 등장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장(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 회가 방영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326회 (2025년 7월 28일 기준)의 방송분 중 소개팅 등 특집 회차, 그리고 연예인이 홍보 등의 이유로 방송 출연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이 출연해 고민을 상담한 전체 방송 회차의 내용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방송에서 일반인이 자기 서사를 밝히는 것이 파레시아로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살펴보려는 것으로서, 출연자의 말하

6) 미셸 푸코, 『담론과 진실』,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17, 23쪽.

기 주제가 주변 시선이나 관계 등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회차별로 4개의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인이 출연한 전체 에피소드 중 개인 간 이해관계 (오해로 멀어진 친구 찾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쉬움, 가족 간 불화 등)나 주관적 취향이나 의지와 관련된 내용 (배달 음식 중독, 오랜 화장 시간 등)과 같은 개인적 주제를 제외하고, ‘남’ 또는 ‘주변’의 시선과 관련된 고민 등 사회적 통념, 편견, 압력과 관련한 상담 주제를 다룬 에피소드만을 선정했다.

〈표 1〉 분석 대상

주제	주요 내용	횟수
직업	직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 편견 등	29개
외모	비만, 외모 불만, 성형, 키, 탈모 등	28개
결혼 및 연애	연령 차이, 국적 차이, 경제력, 학력, 혼전 동거, 미혼 부모 등	22개
사회적 역할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	22개
장애 및 질병	정신 질환, 신체장애, 희귀 질환 등	13개
자기 치부	범죄 경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외톨이, 범죄 피해 등	10개
이주민	탈북민, 재외동포, 한국 정착 외국인 등	9개
성소수자	성전환자, 성소수자 등	4개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에피소드로 총 137개를 선정했으며, 직업, 외모, 정상 결혼 및 연애, 장애 및 질병, 사회적 역할, 자기 치부, 이주민, 성 정체성의 8개 주제로 분류했다. 선정된 에피소드 방송분을 모두 시청하고 텍스트화해 상담 대화 속 담긴 담론 내용을 분석했다. 푸코의 파레시아 개념과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 개념을 아래의 분석 틀로 삼아 출연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프로그램 형식, 내용, 구조적 측면에서 위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1) 푸코의 파레시아

- 말하기와 듣기의 권력관계: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파문을 일으키는 저항의 성격을 띠는가
- 위험의 감수 : 사회적 비난이나 조롱, 낙인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가
- 윤리적 실천 : 자기에 대한 진실에 대한 공표를 통한 주체로서 삶의 양식을 실천해 나가는가

2)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

- 주체의 가시화 : 자신만의 고유성을 통해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는가
- 불화로서의 정치 : 기존 규범이나 사회적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 감성의 분할: 새로운 인식 체계를 통해 사회적 의미의 지평을 확장하는가

3. 이론적 논의

3-1. 푸코의 파레시아(parrësia)

성 정체성이나 범죄 피해 경험, 가족 간 불화, 이혼, 미혼모, 한부모 가정,

다문화 결혼 등의 주제는 다수의 일반적 상황을 기준으로 한 정상성에 대한 문제로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성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저항적 발언은 권력관계에 맞서는 위험한 말하기가 될 수밖에 없다. 푸코는 이처럼 주변의 무시나 질시, 혹은 비난에 처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지는 사회의 일반적 담론에 맞서는 진술의 정치적 효과를 파레시아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푸코는 고대철학자 필로데모스의 <파레시아에 관하여>에서 발견한 파레시아의 ‘마음 열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의 특성에 주목⁷⁾하며 담론의 관계적 속성과 담론에 담긴 권력 문제를 논의한다.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말하기’를 뜻하는 파레시아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기 위한 용기나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푸코는 이를 통해 담론의 구조나 담론의 참조 대상과 필연적 관계를 맺지 않는 진실 말하기의 윤리적 구조를 탐구하고자 했다⁸⁾. 이미 정해진 진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진실’ 즉 나의 인식과 판단 속에 진리로 판명된 것을, 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 외부로 드러내는 실천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로 표현된 모든 담화가 아닌 발화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즉 권력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자기표현만을 파레시아로 국한함으로써 담론이 갖는 정치적 역량을 강조한다. 이는 무엇보다 진리 판단에 대한 주체가 자기라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서 주체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의 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내포한다. 푸코는 파레시아를 아테네 민주 정체의 원리로 보면서 파레시아라는 발언의 권리가 그 도시의 시민이라는 사실과

7)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172쪽.

8) 푸코, 『담론과 진실』, 23쪽.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파레시아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푸코의 파레시아는 말하기의 내용보다 지식, 권력, 주체의 역학 관계 속에서 주체의 판단과 행위로 드러나는 윤리적 실천에 초점을 둔 정치적 개념인 것이다.

그렇기에 푸코는 파레시아를 언급하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사유할 수 있는가보다 타인들 앞에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⁹⁾를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진실 말하기’가 갖는 정치적 속성은 파레시아의 몇 가지 특성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푸코가 주목하는 파레시아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 말하기’이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기, 자기 노출과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의 정치적 역량, 권력관계 구조, 윤리적 실천이라는 실천적 함의가 들어 있다.

우선 푸코가 말하는 ‘진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파레시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신의 선택¹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푸코가 주체의 존재 양상으로 설명하는 ‘자기 배려’와도 관련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고 돌보는 것이 자기 배려¹¹⁾라면 파레시아는 자기 배려의 연장선상에서 실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푸코는 이러한 파레시아에서 오직 설득만이 관건¹²⁾라고 강조하며 그 진실의 내용이나 종류가 아닌 진실 말하기와 결부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게임의 문제¹³⁾라 설명한다. 파레시아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말하기 행위의 효과에 주목한 것으로 정치의 속성을 떨 수밖에 없다. 또한 푸코는 이러한 파레시아를

9) 위의 책, 35쪽.

10) 위의 책, 65쪽.

1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3: 자기 배려』, 이혜숙·이영목 역, 나남, 2020, 78쪽.

12) 푸코, 『담론과 진실』, 118쪽.

13) 위의 책, 202쪽.

“각자가 자기 고유의 생활 양식, 실존 양식을 갖고, 각자가 자기 삶의 양식을 구축하는 방식을 갖게 된다는 것, 단순한 발언의 자유가 아니라 삶의 선택, 각자의 선택 속에서 무제한적으로 자기 고유의 삶의 양식을 선택할 자유”¹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한 견해를 선택해 피력하고 그 결과를 행위로 이행하는 것은 주체의 실천으로서 정치의 본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때의 언어 행위는 단지 수행적 언표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의 관계나 절차, 사회적 범주를 수반¹⁵⁾한다는 측면에서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써 사회적 의미를 띤다.

또 하나 파레시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실천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파레시아는 언제나 화자와 청자 간의 게임이며 화자는 언제나 대화 상대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¹⁶⁾하는데, 파레시아는 기본적으로 위계가 있는 권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저항의 속성을 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분노나 대립 혹은 아침과는 다른 것¹⁷⁾으로서 자기에 대한 돌봄을 행하는 것, 자기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갖고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서 정치 양상을 띤다. 자신과 일치되는 신념을 드러내는 파레시아는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로서 권력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말하기는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연결되기에 언제나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푸코는 파레시아의 의무는 아무에게나 발화되는 것이 아닌 스승, 지도자 등 자기 돌봄을 위해 필요한 타자에게 적용¹⁸⁾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기가 공적 삶을 구현하게 하는 구체적 차원임을 언급하는 것으

14) 위의 책, 231쪽.

15) 위의 책, 102쪽.

16) 위의 책, 96쪽.

17) 위의 책, 51쪽.

18) 위의 책, 28쪽.

로 볼 수 있다. 이세고리아(isegoria), 즉 발언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기본 원리라면, 파레시아는 평등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설득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전제한다. 본래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이에게 행해지는 발언이 아닌 상대적 권력을 가진 자에게 행해짐으로써 권력관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잠재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말하기의 상황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발언은 언제나 용기 있는 실천일 수밖에 없으며, 파레시아로서 효과는 말하는 자가 권력 우위의 자를 설득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의 우위에 서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말하기는 주체화의 과정이자 정치 행위인 것이다. 다양한 공적장에서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이나 비난, 조롱 혹은 질타에 이르는 부정적 반응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을 설득하는 삶의 정치를 실천하고 것을 의미한다.

3-2.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

푸코의 파레시아가 갖는 정치적 속성은 랑시에르의 정치에 대한 논의와 연결할 때 더욱더 명확해진다. 푸코의 파레시아가 담론에 내재한 권력의 비대칭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식한 바를 자신보다 높은 권력의 위계를 가진 자에게 말함으로써 자기 고유의 삶을 설득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는 계쟁, 불화 등의 개념을 통해 자기의 몫을 다투기 위한 목소리 내기에 주목한다. 푸코와 랑

19) 박수인, 「철학은 어떻게 비판이 되었는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파레시아에 대한 푸코의 고찰」, 『철학사상』 제8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22, 227쪽.

시에르가 바라보는 주체화와 정치 개념에 차이는 있지만, 둘 모두의 논의 속에서 정치란 자기 말하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권력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관철해 내는 실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적 삶의 실천으로도 볼 수 있는 파레시아는 랑시에르의 주체화 개념과 맞닿아 있다.

랑시에르는 푸코의 주체화 논의에 정치가 빠져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푸코 사상을 중심으로 정치 이론을 발전시켰다²⁰). 랑시에르는 기존의 정치 개념에서 공권력이나 법체계와 관련된 것을 치안으로 분리해 정의하고, 정치란 그러한 질서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다투는 것이라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 정치에서 민중 즉 데모스(demos)를 말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함에 따라 일반 시민을 자유를 가진 민주적 주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계산 착오²¹)일 뿐, 이들은 일과 재생산을 떠맡은 익명인으로 공동체에서 자신의 몫을 다투는 목소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유로운 존재는 외양일 뿐 이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몫을 나누는 분할의 질서와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갖출 때라고 보면서 주체화를 정치의 본질로 설명한다. 이러한 주체화의 개념은 푸코가 파레시아를 통해 설명한 윤리적 주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랑시에르의 정치적 주체는 이러한 분할 체계에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유와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랑시에르는 미학을 진정한 의사 결정 주체로서 시민으로 존재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바라본다. 랑시에르는 예술과 정치, 혹은 미학과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정치의 본질을 미학과 예술에서 찾으며 그 이유를 둘은 모두 감성의 분

20) 진태원,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 제63호, 메이데이, 2015, 204쪽.

21) 자크 랑시에르, 『불화』, 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995, 35쪽.

할 체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²²⁾. 정치란 공동체 공동의 몫을 가진 지배 계층과 아무 몫도 갖지 않은 대중의 다툼²³⁾이기에, 이러한 몫을 나누는 다툼에는 분할에 대한 식별과 사유가 필요하고 그것을 다투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예술의 본질이 재현 논리를 따르는 일반 법칙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미학은 기존의 경계 설정 전체를 전복시키고 공통 경험을 재분할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따라서 예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인 것이다²⁴⁾.

랑시에르의 ‘인민(people)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²⁵⁾는 표현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은 자기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존재 가능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랑시에르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중이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변별적 특질, 능력 혹은 무능력을 특권화해 구축한 형상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대중이란 권력관계 속에서 투쟁의 과정을 통해 가시화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²⁶⁾. 민족이나 종교 등 이미 정해진 정체성이나 계층 위계 모델에 따라 정의하는 대중은 권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어떤 외양이나 수사로만 존재할 뿐 주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수사적 외양에 갇힌 존재가 아닌 주체로서 대중을 ‘유희하는 민중’으로 명명하고, 주체로서 시민의 특성을 능동과 수동의 대립 자체를 증지시킴으로써 기존의 위계 모델과 거리를 두는 데서 찾는다²⁷⁾. 그리

22)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도서출판 b, 2012, 22쪽.

23) 랑시에르, 『불화』, 35쪽.

24)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16쪽.

25) 알랭 바디우·피에르 부르디외·주디스 버틀러·자크 랑시에르·사드리 키아리·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임옥희·주형일 역, 현실문화, 2016, 176쪽.

26) 위의 책, 176쪽.

27) 자크 랑시에르, 『아이스테시스』, 박기순 역, 2024, 길, 14쪽.

고 이러한 주체의 형상을 스페인 화가 무리요의 그림 〈어린 거지〉에 대한 헤켈의 비평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랑시에르는 어린 거지의 낡고 허름한 옷차림과 대비되는 거지의 고고한 표정의 대비에 주목했는데, 그림 속 거지는 아감벤이 저항과 거부의 가능성, 창조 행위에 잠재된 힘‘하지 않을 힘’²⁸⁾으로 정의한 무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둘러싼 규율과는 괴리된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랑시에르는 어린 거지가 드러내는 것은 어린아이나 빈민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특정 외양에 갇힌 존재가 아닌 기존 규율을 따르지 않을 잠재성으로서 무엇이든 자신의 욕망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주체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²⁹⁾.

이는 랑시에르가 정치의 본질적 개념으로 제시하는 불화나 계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랑시에르는 민주주의 정치의 특성을 합의가 아니라 불화로 보면서 정치란 가지지 못한 자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지배층과 인간에게 주어진 공동의 몫을 나누는 과정에 발생하는 다툼이라고 설명하며 정치란 곧 불화라 주장한다³⁰⁾. 랑시에르는 불화를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들지 못하는 일정하게 규정된 언어 상황”으로서 대화의 내용이나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대화를 나누는 이들을 둘러싼 상황의 문제³¹⁾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툼으로서의 불화는 자신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정치가 된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란 기존의 법, 규율, 제도와 같은 나눔을 규정하는 질서나 체계가 아니라 그러한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입장을 다투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불화를 정치의 본질로 설명하는 것은 인정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다투는 행위를 통해 합리화된

28)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역, 꾸리에, 2014, 152쪽.

29) 랑시에르, 『아이스테시스』, 48쪽.

30) 랑시에르, 『불화』, 43쪽.

31) 랑시에르, 『불화』, 61쪽.

질서와 체계 안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4. 자기 서사 말하기와 주체의 실천

4-1. 말하기와 권력관계

푸코는 파레시아를 자기 자신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루어지는 진실에 대한 말하기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주체 되기를 가능케 하는 말하기의 윤리적 구조에 주목했다. 파레시아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담화의 주체가 말하는 진실은 파문을 일으키고 듣는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푸코가 위협을 무릅쓸 일이 없는 왕이나 군주, 잃을 명예가 없는 노예는 파레시아스트가 될 수 없다³²⁾고 언급하고 있듯이 파레시아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말하는 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전복적 힘을 갖느냐, 그것이 설득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있다. 푸코의 파레시아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게임으로 진실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관계 구조인 것이다. 푸코가 현대 사회의 파레시아 사례로 종교운동, 정당, 대학과 정기 간행물, 미디어 등³³⁾을 언급하고 있듯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파레시아의 조건을 제공해 준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을 파레시아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32) 푸코, 『담론과 진실』, 31쪽.

33) 위의 책, 135쪽.

출연자들의 말하기가 대중을 상대로 한 설득과 논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 채널의 정규 방송은 물론 방송사나 포털의 다시 보기 서비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재편집 버전의 시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통한 일반인들의 고민 상담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표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양한 매체의 댓글을 통한 시청자 반응이나 출연자의 SNS 소통 가능성, 나아가 출연자들이 밝히는 고민의 이유가 결국은 '남과 다른' 혹은 '남이 몰라줘서'의 상황으로 수렴된다고 본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밝히는 자기의 이야기는 일반 대중이라는 다수의 권력에 소수자로서 개인이 용기 있게 밝히는 파레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푸코가 파레시아의 장소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고라, 헬레니즘 왕국에서는 궁정이라고 구분해 언급한 이유 역시 그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비대칭적 권력관계 속에서 논쟁을 통해 설득하고자 하는 용기의 실행에 초점을 둔 것³⁴⁾이라고 본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사람들은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넘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자 즉 파레시아스트이고 이때의 프로그램은 아고라나 궁정과 같은 공적 담론의 장이 된다.

이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이 자기의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파레시아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출연자들이 사연을 밝히는 내러티브의 구조와 선녀 보살과 아기보살이 있는 점집이라는 상담의 리얼리티와 예능적 재미를 살리려는 허구적 장치에서 찾을 수 있다. 출연자의 고백이 파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위험을 무릅쓴 설득의 시도여야 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대화는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가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는 일방적

34) 위의 책, 126쪽.

구조를 띠지 않는다. 두 진행자가 갖는 권위는 캐릭터화된 허구로서 출연진에게 설득 불가한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아니라 변명, 호소, 반박 등에 열려 있는 권위로서 설득의 효과를 갖는다. 의사,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 전문가가 출연해 일반인을 상담하는 다른 상담형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전문 지식의 권위로 상징되지 않은 두 진행자의 조언이나 의견은 참조될 뿐 출연자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지식 권력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반말을 하고 따끔한 일침이나 조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긴 하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고민 상담은 일방적 훈계나 비판의 양상을 띠지 않는다. 진행자들이 힐난이나 충고를 하는 권력의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지만, 상담자로 출연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나 상황의 특수성을 주장한다.

또한 나이, 이름, 직업을 묻는 기본적 소개 절차를 거치고 465살 선녀와 1살 아기 동자 캐릭터로 꾸민 진행자들은 60세 이하의 출연자들에게 반말로 응대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고민을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갖는 위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허구적 장치가 된다. 진행자들의 반말 사용이 민감한 개인사를 털어놓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형식상 자칫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출연자의 고민 진술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라는 다수의 권위에 맞서는 용기 있는 말하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허구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갖는 언어의 위계가 고민 상담이 비대칭적 권력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담화임을 명시하게 되고, 출연진의 진술은 진행자들이 상징하는 권위에 맞서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를 설득하는 파레시아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비대칭적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설득의 가능성은 개인의 고민을 다루는 회차별 에피소드 진행 서사 구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캐릭터로 꾸민 두 진행자가 앉아 있는 점집에 출연자가 들어와 착석하며 시작한다. 자리에 앉으면 1) 진행자가 이름, 성명, 직업을 묻고 이에 답하기 2) 고민에 대한 진술 3) 고민인 이유에 대한 진행자들의 해석 4) 출연자의 추가 설명 5) 진행자들의 고민에 대한 맥락 재해석 6) 재해석에 대한 해명, 반론 등 재설득 7) 조언과 비판 8) 수긍, 반박, 포기, 해결책 요구 9) 깃발 뽑기 10) 깃발 의미 해석 11) 방명록 적기와 사회 밝히기라는 단계를 거친다. 대부분 10여 분 내외의 길이로 편집된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고민이 될 만한가’ 즉 받고 싶지 않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회적 압력이 발생하는가를 주로 다룬다. 푸코의 파레시아에서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라면 에피소드의 서사 구조는 출연자의 고백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킬만한 일인가를 논하는 것으로서 배부른 사랑싸움이나 개인 사이의 다툼 같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고민 아니라며 돌려보내는 제스처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 일반 상식적 수준에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개인의 피해의식 등 비합리적인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닌 출연자가 털어놓는 사연은 일반화된 사회적 의미 구조를 따르지 않는 주제로서 진행자들은 출연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에 공감하고, 때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시선에 일갈하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4-2. 위험의 감수와 말하기의 용기

출연자들의 말하기가 파레시아인 이유는 일단 이것이 고민이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은 방송에 나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겪은 경험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설명하는데, 왜 나왔냐는 진행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

은 권력의 작동 방식, 이데올로기적 기제, 정당성 등과 관련한 판단이 들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성 정체성이나 신체 건강 상태와 같은 쉽게 밝히기 어려운 자신의 상황이나 밝혔을 경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등 방송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및 질병, 사회적 역할, 적령기, 외모, 역할, 정상 연애 및 결혼, 직업, 자기 치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은 정상적 혹은 일반적이라는 기준으로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사회적 압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직업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은 현재 직업보다 소득이 낮거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직업 변경의 의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직업적 편견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수익이나 위험도 등 다른 이유 외에도 직업에 대한 성별 편견 등 이데올로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전업 주부, 해녀, 네일아트 등 여성이 주로 맡아 온 일을 하고자 하는 남성에게 주변의 못마땅해하는 시선이 문제라면, 비뇨기과 의사, 버스 운전기사, 마을 이장, 덤프트럭 기사 등 남성이 주로 해왔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성희롱이나 따돌림 등 폭력에 가까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민을 이야기한다. 혹은 예로배우나 청년 농부, 장례지도사 등 기피 업종이나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출연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이들은 고정된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남자 전업주부로 살면서 느끼는 고민이나 갈등 등이 많아서...가정주부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자타공인의 살림 전문가가 되고 싶다”, “네일 아트 자격증을 땀는데 누나나 여자 친구 모두가 반대하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평생 처음이어서..” 와 같이 이러한 고민을 말하는 출연자들은 직업, 나이, 성별, 학력

등 집단과 계급에 부여된 정체화를 부인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주체가 빈민, 이주민 등 보편성의 범주화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면, 이들 출연자의 말하기는 타자가 부과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실천으로 정치적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주체의 가시화가 두드러지는 주제가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및 질병 등 소수자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들이다. 진행자들과 나눈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 방송에 나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까지의 어려움과 관련된 표현들이 주로 나타나며, 힘들게 출연을 결정한 만큼 앞으로도 난관이 계속되겠지만 자기에 대한 진실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나 결의의 언어가 주로 발견된다. “혼자만의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여기서 터트리려고 왔어요”, “갖고 있는 질병을 주변에 말하고 싶고,... 화장으로 감추지 않아도 당당하게 나가고 싶어서” 등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공공연히 밝힌다. 따라서 현재의 고민도 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도 하며 살래요”, “내 정체성을 찾아 행복해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이제는 탈복 사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믿어줬으면 좋겠다” 등 자신에 대한 긍정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표현한다.

또 하나의 말하기 주제는 아버지나 어머니, 남성과 여성, 직업, 나이와 같은 개인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주어진 고정관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를 말하는 출연자들은 이러한 사회 통념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내면화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갈등하거나, 두 진행자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진행자의 반문에 먼저 나서 옹호하는 경향도 보인다. 남이 어떻게 볼지 자신도 알고 있지만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두둔하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코스프레를 해서 산후

우울증을 이기기도 했는데...또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아이가 있는 제가 계속 해도 될지...나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아이에게도 상처가 갈까 봐”, “처음엔 남편과 많이 싸웠는데 저 스스로도 비용도 줄이고 집에 영향을 덜 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예쁜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섹시하고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데... 애들 친구 오면 이렇게는 안 입죠...저 혼자 다닐 때만 이려고 다닐게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스스로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을 진행자와 시청자들에게 설득하고자 한다.

이들이 털어놓는 고민의 언어 안에는 자신의 갖고 있는 가치나 방향이 사회의 일반적 견해나 기준과 다름을 알고 있고, 주변에 알리게 되면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자신에 대한 진실로서 이해받기를 원한다. 이들의 말하기는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밝히겠다고 말하거나, 현재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부당한 것이기에 방송 출연을 계기로 이에 맞서겠다고 하거나, 타인의 시선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4-3. 자기 서사의 구축을 통한 가시화의 정치

출연자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직업까지 말하게 하는 규칙은 익명의 대중이 아닌 주체로서 자기의 고유성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출연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순간 익명적 존재에서

고유성을 가진 주체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들은 성별, 나이, 직업 등 기본적인 정체성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이들이 고민의 주제로 언급하는 성소수자, 환자, 외국인 등의 단일한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개인은 통상적인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재현된 이미지를 벗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그 자체만으로 존재한다. 출연자들이 설명하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타자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 집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내면화하지 않는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되고 홀로 자녀를 키우게 된 미혼부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싶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베트남에서 왔지만 도망가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진술이 보여주듯 동남아 이주민 여성이라는 사회가 호명하는 정체화를 넘어선다.

랑시에르가 예술 작품의 이미지에서 발견한 ‘다른 무엇도 지시하지 않는 이미지, 그 자체가 퍼포먼스인 이미지’로서 재현의 체계에 의지하지 않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³⁵⁾. 출연자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은 랑시에르가 예술 이미지에서 발견한 간극일지도 모른다. 출연자들이 고민으로 갖고 있는 것은 소위 ‘정상’과는 다른 상황이고, 이들이 방송 출연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차이의 실존, 즉 간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퇴근 후엔 댄서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직장인, 해남이 되고 싶은 대기업 출신 청년, 중식당을 창업하고 싶은 수학 강사,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명문대 박사과정생, 코스프레가 취미인 가정주부가 말하는 고민은 랑시에르가 노동자들의 독서나 글쓰기에서 발견한 노동과 일상의 경계선 전복을 통한 정치적 실천³⁶⁾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랑시에르가 노동자들의 밤 시간의 독서나 글쓰기가 자본주의 체계가 강제하는

35) 자크 랑시에르, 『이미지의 운명』, 김상운 역, 현실문화, 2014, 12쪽.

36) 자크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역, 문학동네, 2021.

노동의 낮과 다음날의 노동을 위한 휴식의 밤으로 규정한 시간 분할의 경계를 전복시킨다고 보고 있듯이, 이들의 발언은 직업적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실천이 된다. 스스로를 단일한 직업적 정체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미리 정해진 규범 체계를 거부한다. 범죄 경험, 알코올 혹은 마약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과거나 각종 강박증, ADHD, 액취증, 투렛트증후군, 불치병 등의 질환, 가난, 학력, 불우한 가정사, 비만, 너무 크거나 작은 키, 호감을 얻지 못하는 외모 등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이들은 차별의 시선을 감안하고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체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출연자들의 말하기를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말하기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좋고 나쁨, 정당함 등에 대한 식별과 사유 즉 미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비난 등의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실천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고민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지 경계 설정을 위한 감각적 확실성(evidences sensibles)의 체계³⁷⁾를 따라 자신의 상황을 자기만의 인식 체계 안에서 구축한 자기 서사인 것이다. 이들이 방송에 나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해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서 자신만의 감성의 분할 체계에 따라 판단한 진실이고, 따라서 랑시에르가 예술에서 발견한 미학 정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에 대한 진실 말하기가 갖는 미학 정치적 특성은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 마지막에 스튜디오를 나와 대기실 같은 장소에서 두 진행자와의 상담에 대한 소회를 적고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37)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13쪽.

장면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대화가 끝나고 나면 출연자들은 방명록에 느낀 바를 쓰고 이를 다시 읽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의 말하기가 단지 방송을 위해 연출된 것이 아닌 파레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방송용 예능 콘텐츠로 소비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발화의 주체를 넘어 발화된 내용의 주체, 자기 자신이 언급하는 의견의 주체³⁸⁾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5. 나가며 : 대중문화 장의 새로운 전유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는 상담형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일반인 출연자의 말하기가 지니는 정치적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출연자의 자기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의 노출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감수한 진실 말하기로서 푸코의 파레시아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감성의 분할을 재편하는 행위로서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와도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허구적 권위(‘선녀’와 ‘아기 동자’)는 발화자를 억압하기보다 설득과 반박이 가능한 담론의 장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출연자의 발화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또한 출연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기 서사로 재구성함으로써, 익명적 존재에서 고유성을 지닌 주체로 드러나게 된다. 이 과정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적 공간에서 정치적 함의를 획득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38) 푸코, 『담론과 진실』, 98쪽.

본 연구는 상담형 예능 프로그램을 정치 철학적 개념 틀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르 연구나 산업적 분석을 넘어 문화의 장으로서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푸코의 파레시아와 랑시에르의 미학 정치라는 이론을 접목하여, 미디어에서의 자기 서사 말하기가 심리적 치유 등의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윤리적·정치적 실천임을 밝히고자 했다. 대중문화 연구와 정치철학, 미디어 연구의 교차점을 확장함으로써, 방송 예능을 공적 담론의 장이자 정치적 실천의 공간으로 재해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한정되어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담형 예능 전반이나 다른 장르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방송 편집 과정에서 출연자의 발화가 왜곡되거나 맥락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본 연구의 담론 분석은 질적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므로, 해석의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한계는 향후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온라인 댓글이나 SNS 반응 속에서 어떤 담론적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 확장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담 예능 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리얼리티 드라마 등 일반인 참여 콘텐츠에서의 발화를 분석함으로써, 대중문화 속 파레시아와 미학 정치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력관계에 균열을 내는 공적 정치의 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이 지닌 정치적 가능성을 규명하고, 대중문화 연구를 정치 철학적 접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방송을 포함한 현대 미디어가 단순한 재현의 공간을 넘어, 소수자의 주체화와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정치적 무대임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무엇이든 물어보살〉 KBS Joy, 2019.3.25~2025.7.28

2. 논문과 단행본

김여주, 「고민 상담 예능 프로그램의 변화 양상 -〈무릎팍도사〉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64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141-174쪽.

류재형, 「사회적 배우로서의 리얼리티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일반인 참여자: 〈윤식당 2〉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274-289쪽.

미셸 푸코, 『담론과 진실』,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17.

미셸 푸코, 『성의 역사 3: 자기 배려』, 이해숙·이영목 역, 나남, 2020.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박수인, 「철학은 어떻게 비판이 되었는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파레시아에 대한 푸코의 고찰」, 『철학사상』 제8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22, 217-258쪽.

알랭 바디우·피에르 부르디외·주디스 버틀러·자크 랑시에르·사드리 키아리·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임옥희·주형일 역, 현실문화, 2016.

오다슬·유홍식, 「부부 동반 출연 예능·상담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별 고정관념의 재현과 갈등 양상」, 『한국방송학보』 제38권 3호, 한국방송학회, 2024, 85-132쪽.

유지윤, 「자기 배려로서의 미디어 고백: 1990년대 말 치유문화와 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4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20, 152-191쪽.

이희은, 「리얼리티, 리얼리티쇼, 그리고 일상의 테크놀로지로서의 리얼리티」, 『언론과 사회』 제31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3, 5-45쪽.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도서출판 b, 2012.

자크 랑시에르, 『불화』, 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1995.

- 자크 랑시에르, 『아이스테시스』, 박기순 역, 2024, 길.
자크 랑시에르, 『이미지의 운명』, 김상운 역, 현실문화, 2014
자크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역, 문학동네, 2021.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역, 꾸리에, 2014.
진태원,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 제63호,
메이데이, 2015, 185-227쪽.

Abstract

Practical Implications of Entertainment Programs Featuring Ordinary People - Focusing on Foucault's Parrhesia and Rancière's Concept of Aesthetic Politics

Yang, So-Ye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self-narratives of ordinary participants in Korean entertainment programs function not only as sources of empathy and healing but also as political acts that reveal subjectivity.

Focusing on Ask Anything (Mueosideun Mureobosal), the paper analyzes speech acts that confront social stigma and institutional repression. Drawing on Michel Foucault's concept of parrhesia and Jacques Rancière's theory of aesthetic politics, the study explores how truth-telling in asymmetrical power relations may involve ethical courage and political significance. While participants' confessions sometimes align with conditions of parrhesia, the media format simultaneously limits their political potential by framing speech within entertainment logic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mediated self-expression can become a site of political agency, suggesting that popular entertainment may function as a contested arena for public discourse and subject formation.

(Keywords: Parrhesia, Care of the self, Michel Foucault, Jacques Rancière, Entertainment programs featuring ordinary people)

논문투고일 : 2025년 9월 1일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